

주변 돌아보고 이웃 돕고 끌어안아야 사회 발전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

서울에서 차로 꼬박 5시간 거리에 정도 운문사가 있다. 바위산에 둘러싸인 운문사는 천년 넘게 수행자를 키워낸 성지이다. 운문사에서 42년째 살고 있는 일진 스님(운문사 주지)은 “운문사는 의보(依報)와 정보(正報)가 아름답게 조화된 도량이다. 시간과 공간, 사람이 조화를 이뤄낸 최고의 사찰이다”라고 말했다.

운문사는 1958년 비구니 전문강원이 개설된 이래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다. 일진 스님은 1970년 학인으로 운문사에 처음 발을 들였다. 이후 강사로 활동하면서 후배 학인스님들을 교육시켰다. 1월 14일 종교와젠더연구소 육복연 소장이 현대 비구니 교육의 중심역할을 한 일진 스님을 만나 대담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스님께서는 1978년부터 운문사에서 강의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 학인스님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 학인스님들은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크다. 얼마 전 방학을 앞두고 강사·학인스님들이 토론시간을 가졌다. 당시 학인스님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강사스님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요즘 학인스님들은 예의가 바르면서도 직설적이고 단순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운문사를 비구니 사관학교라고 이야기 합니다.

“운문사는 굉장히 규율이 엄격하고 절제 있게 사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운문사에서 42년째 생활

운문사 승가대 강사에 자부심

한국 비구니에서 감사하고 행복

수행자가 맘 놓고 수행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규율이 조금 허술하다면 스님들이 더 잘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다. 현대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규칙들로 대중들의 내면적 자유나 여유로움을 빼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학인스님들이 초심자들이고 걸음은 어떻게 걷고, 말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먹는 지 등을 가르치는 도량이다 보니 서로가 불편해도 조금씩 감수하며 산다.”

운문사 출신 스님들은 선후배 관계가 좋고, 대외적 활동에서도 반듯한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소임은 운문사 주지이나 본업은 강사다. 운문사 강원은 1780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운문사를 나온 스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타인의 신뢰를 얻고 공부를 하니 기분이 좋다. 이곳에서 생활할 때는 많이들 힘들었을 텐데... 그들이 졸업하고 나서 도반들과 선후배들끼리 결속력 있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

지난 해 교육원 신하 교육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스님께서도 교육제도가 커리큘럼의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세대의 스님들이 원서강독에 대해 큰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다. 완전한 교육 개혁은 완벽한 지도·관리에 있다. 제도만 바뀌는 것은 완전한 교육개혁은 아니다. 인연에 따라 경전을 영어로 볼 수 있고, 한문으로도 볼 수 있고, 한글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스님은 현대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압니다. 대만과 일본에서 중국불교와 일본불교를 공부하셨는데, 일본과 중국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위상과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1980년대 후반 대만학회에 참석하고 많이 놀랐다. 당시 불광산사 성운 대사는 스님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시했다. 대만 스님들은 비구와 비구니를 떠나 철저히 능력제로 활동하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대만 비구니스님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버스비도 대신 내준다. 사회적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사회학자는 “수행자와 어린이가 보호받는 사회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대만이 그런 나라이다. 일본 비구니스님들은 생각보다 사회적인 위상이 저조했다. 오히려 대처승의 부인의 위치가 더 높은 듯 보였다. 일본은 남성우월주의가 짙어 많이 안타까웠다.”

여러 번 생각해도 나는 한국 비구니에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한 때는 비구니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이 커지다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만의 비구니스님들 소원이 한국에서 안거를 지내는 것이다. 대만 비구니스님들은 전문적 노동자처럼 노동이 많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수당시대의 중국불교의 모습이 남아 안거제도를 시행하는데, 대만 비구니스님들은 한국의 하안거와 동안거 문화를 굉장히 부러워했다. 수행자가 수행을 맘 놓고 할 수 있는 것도 복인 것 같다.”

중국대 재학시절 ‘여성 불가에서 열등한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말 여성은 불가에서 열등한 존재입니까.

“당시 승가대학(강원)은 6년제였다. <화엄경> 공부를 앞두고 승가대학 4학년을 마친 뒤, 중국대에 입학했다. 중국대에 입학하고 3학년이 되니 생각이 많아졌다. 그래서 사형들과 함께 오대산 적멸보궁에 기도를 하러갔다. 그때 오대산 선방에서 수행하

던 비구스님들이 있었다. 스님들 중 한 분이 비구니인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비구니가 백날 그래봐라’라고 소리쳤다.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에 김동화 박사님이 쓴 초기불교에 관한 서적과 여성불교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부처님 당시 교단에서의 여성출가자의 상황과 위치, 분위기를 파악하고 싶었다. 그리고 노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다. 역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노스님들로부터 과거의 여성불자의 역할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당시 논문을 쓰면서 느낀 것은 여성이 무조건 열등하고 남성이 우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성의 강함은 특성이지만 우열의 기준이 아니다. 부처님은 별레마저도 소중히 여기시던 분이셨다. 여성 수행자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었다. 다만 여성은 여성만이 지닌 섬세함이 있다. 논문을 통해서 “여성의 자비로움과 섬세함, 남성의 강직함을 서로 조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여성(비구니)과 남성(비구)이 조화를 이뤄 종단의 양 날개가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종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한국 종단에서 비구스님들이 중심을 이루는 것은 계율 구조로 편안하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구조가 아닌 진리이다. 여성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필요한 곳에 회합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비구니의 참중권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구니회장 명우 스님께 서도 선거 공약에서 비구니위상의 확보와 총회의원 증원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해

남성의 강함은 특성이지만 우열이 아닌 여성의 섬세함과 남성의 강직함이 서로 조화해야 종단 발전해 자리이타 정신으로 자비사상 실천

7월 중헌중법제개정 특별위원회에 비구니 총회의원 스님들께서 ‘비구니총회의원 의석수 개선방안’도 제안하셨는데 비구스님의 참중권 확대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이번 중회에 참여해 많은 것을 느꼈다.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비구스님들의 역할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비구스님들은 열심히 배워야 하고, 비구스님들은 열심히 지도하고 이끌 어줘야 한다. 무조건 중족만 늘린다고 승사는 아니다. 비구스님들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제 몫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비구니의 역할은 강화된다. 억지로 투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구스님의 지위는 곧 불교계 재가여성의 지위와 연관되기 때문에 재가여성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명성 스님은 비구니와 우바이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단은 중헌에서 사부대중에 의한 중단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남성과 여성, 출가자와 재가자를 이분화해 차별하는 듯 보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일진 스님은 ... 1970년 재석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1971년 벽암회상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월화회상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운문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한 이후, 운문승가대학 중강과 교무를 역임했으며, 동국대 승학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명성 스님으로부터 전강승가 강사로 취임했다. 1988년 대만 불학연구소에서 중국불교를 연구했으며, 1994년 일본 경도불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6년 운문승가대학 강사에 재임했다. 이후 2002년 운문승가대학 학감 취임, 2003년 조계종 교재 편찬위원, 2004년 단계단니 갈마위원, 2005년 불교여성개발원 특별 자문위원, 2007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운문사 주지에 재직 중이다.

“조선시대는 불교와 여성들이 억압받던 시기이다. 여성들은 그 속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당시 조선시대에 사찰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은 불교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행복을 찾았다. 명성 스님의 말씀처럼 비구니스님과 여성 불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여성의 장점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이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발휘해야 한다. 현대는 다분 회색시대. 요즘 내가 가장 관심 갖는 분야이고 공부해야 할 분야이다. 비구니를 포함해 여성들은 할 일이 많다. 누가 어떤 지위와 역할을 주기 전에 알아서 일을 찾아 나

서야 한다. 군포교, 다문화포교 등 사회 구석구석에는 여성의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그렇게 점차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활동하다 보면 지위는 향상될 것이다.”

무엇이 참 나의 모습이고 무엇이 허상의 나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 불자들에게 여성리더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끔 불교대학에 강의를 나가면 여성 불자뿐이다. 남성들 대부분은 그 시간에 직장에 있어 강의에 참여할 수 없다. 나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복을 많이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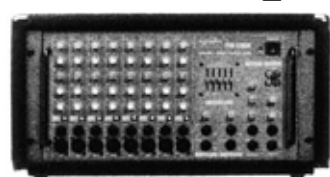
출산·가족부양 등 모든 주도권은 여성이 갖고있다. 제대로 된 정치인도 여성이 잘 길러내야 한다. 앞으로 급변화 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모성애’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한다. 모성애에 근본을 두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엄마’는 본성이다. 이것에 입각해 살면 힘들어 할 일이 없다. 또한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자리이타는 보살정신이다.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끌어안아야 사회가 발전한다. 자기자신을 이롭게 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이다. 불자라면 자리이타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자비사상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50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135,000원(일반형)
◇가격: 175,000원(고급형)